기자 출신 노신사와 실크로드를 걸어보자

터키 이스탄불에서 중국 시안까지 1099일에 걸쳐 도보로만 여행한 베르나르의 답사기는 일종의 '구도기'에 가깝다.

'나는 걷는다 1·2·3'

베르나르 올리비에 지음 / 임수현 옮김

효형출판 / 각권 9천8백원

책속의 밑줄긋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이동방법인 걷기는 접촉을 가능하게 한다. 규격화된 문명과 온실속 문화에는 이제 싫증이 난다, 내 박물관은 길들과 거기에 흔적을 남긴 사람들이고, 마을의 광장이며, 모르는 사람들과 식탁에 마주 앉아 마시는 수프인 것이다."

▷"'이렇게나 먼 곳에서 무엇을 찾으려 하는가'를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다만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굴복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가야만 했다. 살아있는 한, 인간은 가야 하니까."

▷"매 걸음을 옮기면서 그동안 내 자신을 몰랐다는 것을 깨달았다. …걷는 동안 내가 소유한 이것 이외에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존재의 이유가 있음을 발견했다."

1999년 한기(寒氣)가 아직 남아 있는 봄, 30년간의 기자 생활을 끝낸 프랑스 노 신사가 배낭을 꾸려 혼자 도보여행을 떠났다. 국내가 아닌 터키의 이스탄불을 시작으로 중국 시안(西安)에 이르는 1만 2000㎞의 대장정이었다. 총 3차례에 걸쳐 4년 동안 만행하듯이 여행을 끝낸 그는 돌아와 해박한 식견을 섞은 여행 보따리를 하나하나 풀어 놓았다.

이 책 <나는 걷는다>는 몇년전 우리나라를 방문해 남산 순환도로를 걷기도 했던 요시카 피셔 독일 외무장관이 쓴 <나는 달린다>와 비슷한 제목이지만 스케일에서는 비교가 안될만큼 방대하다. 1권은 터키를 횡단해서 이란 국경에 이르기까지, 2권은 이란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까지, 3권은 마침내 중국의 시안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을 담았다. 세 권을 합쳐 모두 1300페이지가 넘는 책의 분량도 분량이지만, 이스탄불에서 중국 시안에 이르는 머나먼 길을 1099일에 걸쳐 혼자 걸어간 기록이라는 점에서 여행기라기 보다는 일종의 수행기에 가깝다는 느낌을 들게 한다.

> 어떤 일이 있어도 서두르지 말고 걸어서 느리게 갈 것 … 홀로 걷다보면 근본적인 것에 닿아

이 책의 저자 베르나르 올리비에(65)는 30여 년 동안 '르피가로' '파리마치' 등 프랑스의 유력 신문과 잡지사에서 정치, 경제, 사회부를 두루 거친 퇴직 기자이다. 현역 기자 생활을 청산한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TV와 소파가 있는 안락한 여가를 누리는 대신 오래 전부터 꿈꿔온 원대하고 황당하기까지한 돈키호테식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한다. 그것은 실크로드를 걸어서 여행하는 일이었다.

실크로드는 700여 년 전 마르코 폴로가 서양에 동양의 존재를 알린 이후 두 세계 간에 무역과 문화의 통로가 되었던 길이다. 대상들이 낙타를 끌고 행군했던 그 신비로운 미지의 길을 여행하면서 저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걸어서 갈 것, 서두르지 말고 느리게 갈 것 이라는 대원칙을 세운다. 이처럼 이 책은 저자가 직접 발로 체험한 실크로드 여행을 기록한 것이다. 저자는 생생한 체험을 있는 그대로 담아냈으며, 다양한 시선으로 실크로드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역사에 대해 간결하게 써냈다.

기자 출신답게 꼼꼼히 실크로드를 추적한 그의 글은 단순한 여행기를 넘어선다. 그래서 진시황, 알렉산더, 티무르, 칭기즈칸 등 역사 인물이 책 속에 되살아나고, 전쟁이 그치지 않는 중동 지역의 긴장감도 글의 곳곳에서 느껴진다. 그는 "걷는 여행을 통해서만 문화의 속살을 볼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떠난 것은 아니었다. 첫 목적지는 성 바울로의 유해가 있는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였다. 그는 파리에서 스페인 목적지까지 2325Km에 달하는 길을 걷고 끝없는 희열을 느꼈다. 도보순례의 매력에 흠뻑 빠진 그는 방향을 신비의 실크로드로 바꾼 것이다.

걷는 것 자체를 통해서 그는 완벽한 희열을 맛본다. 하루종일 걷다 보면 모든 게 단순해 지는 법. 그것도 3년을 이어갔으니 그 단순의 정도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불필요한 짐은 물론 쓸데없는 잡념도 사라지고, 오직 자신이 그날 경험한 것만이 머릿속을 맴돌 뿐이었다. 물질의 무거움에서 해방된 뜨거운 몸은 밀밭과 경작지 위에서 날개를 달았다. 걷기에의 몰입은 무신론자였던 자신의 세계관까지 바꿨다. 어떤 종교든 신도들이 순례에 오르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은 그래서 나왔다. 홀로 발걸음을 옮기며 잠긴 생각으로 근본적인 것에 도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책을 읽을 수록 평화통일 도보순례 등 우리국토의 방방곡곡을 행선(行禪) 수행하신 천축사 무문관 출신 원공 스님의 모습이 자꾸 오버랩된다.

모든 여행이 다 그렇겠지만 도보 여행처럼 많은 사람을 짬지게 만나는 경우가 또 있을까.

책은 머리로 세상을 배우지만, 여행은 몸과 마음으로 세상을 깨닫게 한다는 진리가 책 속 구석구석에 녹아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전문가 서평

'한국인 트렌드…'

김경훈 등 지음

책바치 / 1만8천원

2000년대에 들어 무수히 쏟아져 나왔던 사회 변화의 설명서들은 세계화나 정보화가 초래하는 거시적 담론에만 집중함으로써, 일반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의 변화'는 간과하는 한계를 지녔다. 그러나 <한국인 트렌드-변화의 물결>는 한국 사회에 닥치고 있는 총체적인 변화에 대한 거시적인 방향 제시는 물론,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중인 미시적 변화까지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와 판단을 돕는 훌륭한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다. 트렌드 분석가인 김경훈(38 · 자유기고가) 씨 등 저자는 이 책에서 서구의 거대담론을 다루는 미래학 관점이 아니라 현재의 한국적 상황에 초점을 맞춘 감식안으로 우리 사회를 전망하고 분석한다.

그가 말하는 한국인의 변화추세는 크게 세갈래. 1부에서는 '우리 사회의 지형도를 바꿀 새로운 흐름들'을 통해 도전적인 미래상 6가지를 살핀다. 그 중 한가지는 생산 · 소비의 이분법적 구도를 넘어 능동적으로 소비에 참여하는 '두 손 문화'다. 컴퓨터의 클릭기능이 수동적인 '한 손 문화'라면 상품 구매리뷰 등 자기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 키보드를 두들기는 행위는 '두 손 문화'다. DIY(Do It Yourself: 네 손으로 해라)산업도 여기에 해당된다. 일본의 경우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돌파한 후 25년만에 DIY산업이 3백배나 성장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하나의 트렌드는 굴레없는 관계 맺기를 지향하는 '임의 접속의 문화'. 1인당 평균 7개의 인터넷카페 멤버십을 갖고 있는 사회에서 아날로그식 인맥이나 붙박이식 삶은 점점 퇴조하고 있다. 상품 또한 소유보다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10년만에 다시 쓴 한국 미래

새로운 인재상 등 20가지 트렌드 제시

2부에서는 자본주의적 트렌드들을 보여준다. 대표적인 것이 다양한 경험과 여러 분야의 전문적 식견을 갖춘 새로운 인재상 '멀티태스커'. 한우물만 파는 프로페셔널에 이어 프로랜서, e랜서 등이 각광받았지만 앞으로는 한 분야의 전문가이자 다른 여러 분야에서 준전문가의 재능과 경력을 쌓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영원한 젊음을 꿈꾸는 '네버랜드 러시'도 눈길을 끈다. 네버랜드는 '피터팬'에 나오는 신비한 섬. 거기서는 아무도 나이를 먹지 않는다.

3부에서는 '사회 이행기의 혼란 속에서 질서 찾기'. 일생에 걸쳐 단 한번의 1등으로 승자독식의 이익을 꿈꾸는 할리우드식 1등주의, 돌발적인 충동을 참지 못해 나타나는 충동조절 장애 신드롬, 내부자 커뮤니티의 변화를 얘기하는 '체온 커뮤니티' 등이 여기에 속한다. 책에 담긴 20가지의 크고 작은 트렌드들은 개인의 삶과 비즈니스 현장, 그리고 사회의 전체적인 그림과 맞닿아 있다.

1994년에 출간돼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었던 <한국인 트렌드>를 10년 만에 다시 만나는 것은 분명 즐거운 일이다. 첫째는 트렌드 주기가 최소 10년이라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타이밍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흔히 한 번 내고 마는 트렌드 서적과 달리, 첫 책에 이어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의 흐름을 성실히 추적한 토대 위에서 향후 10년의 변화를 분석한 저자의 성실성이 돋보이기 때문이다.

■이창환 / 하나로통신 강원지사 팀장

<한국인 트렌드>는 제목 그대로 한국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비즈니스 동향까지 한국인의 20가지 트렌드를 제시한 책이다.

이젠! 깊은 산요초 향기를 "공양" 올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 제일 공양 태우지 않아 연기없는 정각향 출시

우리산 나무, 잎, 열매를 따서 해초로 만들어진 전통법제향은 참깨를 볶아 고소함을 내는 비법과 같습니다.
깊은산 자연으로 불자님의 건강은 물론 생활이 더욱 좋아질것 같은 설레임 그 소중함을 안겨드립니다.

사용처
· 법당과 선방으로 배달되고 있습니다.
· 최고의 기업 비서실에서 다시 찾는 향입니다.
· 불자님의 가정의 화목과 행복은 물론 집중력이 필요한 공부방에서 자동차안까지 숲속의 맑은 정기를 채워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용후
· 21가지 산요초와 솔잎, 난초,국화, 몸에 좋은 모과는 물론 나쁜 재앙을 물리치는 경명의 힘까지 함유되어 사용후 배게속에 넣어 다시 사용하는 천연향입니다.
· 마음이 편안한 향낭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방안의 냄새는 물론 담배생각까지 점점 줄어드는 자연향에서 집안에 수맥걱정, 시멘트 및 화학 물질의 독성까지 걱정을 덜어주는 천연광물질의 힘이 담긴 향 알갱이를 하루에 한알(작은알은 두세알)씩 뚜껑에 보충시켜주십시오.
· 삼국시대부터 전해진 향낭의 신비로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氣"이며 당신의 힘이 될 것입니다.

제품속에 행운이 깃드는 신비의 돌
경명이 첨가되었으므로 한두알씩 주머니속에 넣어 보이지 않는 좋은 향기의 "힘"을 느껴 보십시오.

차량용
가정용

경제적인 아로마 알갱이 리필

제조원 Mountain
세계적인 정각향 알갱이를 만드는 법제력!
KOREA Aroma 알갱이
www.Aromamall.org
고객센타 051)633-4070 / 향장인 직통 011-9384-4801
입금계좌 : 국민은행 107-21-0904-797 예금주 : 김도헌

불교성지순례
15년간 불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주)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02)720-9600

부처님의 숨결을 느낄수 있는 곳!! 인도
실크로드와 함께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인도성지순례 10일(불교8대성지) 1,890,000원
▶일 정 : 델리-기원정사(금강경설법지)-카필라성(부처님 고향)-룸비니(탄생지)-쿠시나가르(열반지)-바이샬리(유마경설법지)-나란다대학-라즈기르(법화경설법지 영축산,죽림정사)-보드가야(성도지)-바라나시(갠지스강,초전법륜지 녹야원)-상카시아(도리천에서 하강하신곳)-아그라(타지마할,아그라성)-델리
▶출발일 : 2월 10일

인도, 네팔성지순례 15일(불교8대성지와 아잔타석굴) 2,570,000원
▶일 정 : 뭄바이-엘로라석굴-아잔타석굴(세계불교미술의 보고)-산치대탑(아쇼카대왕의 걸작)-아그라(타지마할, 아그라성)-상카시아(도리천에서 하강하신곳)-바라나시(갠지스강, 초전법륜지 녹야원)-보드가야(성도지)-라즈기르(법화경설법지 영축산, 죽림정사)-나란다대학-바이샬리(유마경설법지)-쿠시나가르(열반지)-기원정사(금강경설법지)-카필라성(부처님고향)-네팔국경통과-룸비니(탄생지)-포카라(안나푸르나등 히말라야설산)-카투만두
▶출발일 : 2월 7일

인도문화탐방 10일 (인도의 문화유적을 찾아서) 1,990,000원
▶일 정 : 델리-자이푸르(라자스탄사막지방 핑크빛 고도)-아그라(타지마할, 아그라성)-카쥬라호(힌두조각 예술의 극치)-알라하바드-바라나시(갠지스강, 녹야원)-델리(국립박물관)
▶출발일 : 2월 12일

미얀마 성지순례 6일 1,590,000원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양곤 ※ 2월 10일 출발

중국불교 4대 명산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항주 5일 850,000원
▶구화산, 보타산, 황산, 영파, 상해 8일 1,150,000원
▶관음도량 보타산, 항주, 상해 5일 790,000원
▶보현도량 아미산, 낙산, 성도 5일 850,000원
※ 10명이상 매일 출발 가능